

## 英國 大學의 特徵과 當面課題

康 熙 天

(全州大 統計學科 副教授)

최근 대학교육의 社會的 機能이 강조됨에 따라 英國 大學에는 傳統主義者와 改革主義者 사이에 날카로운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전통의 持續과 變化라는 두 命題 사이의 긴장관계는 곧 大學教育理念 설정에 있어서의 能力主義 대 平等主義라는 이론적 갈등을 표출시키는 실례인 것이다.

### I

영국 대학교육의 發展과 그 理念의 서술에 있어 1963년에 발표된 「로빈스 보고서」는 커다란 분수령을 이룬다. 8세기라는 긴 역사를 지닌 영국 대학의 발전과정 중 「로빈스 보고서」가 그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 주요 根據는 정부가 최초로 고등교육 발전에 관해 계획 청사진을 마련하여 실제 정책에 反映시킴으로써 다양하게 亂立되어 있던 고등교육의 體制를 확립한 점과, 60년대 산업경쟁의 요구에 副應하기에는 沈滯性을 띠고 있던 영국 대학교육을 비교교육적 견지에 浮刻시키면서 大學校의 신설과 大學生의 수적 증가에 曄목할 만한 공헌을 한 점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구적 개혁, 외형적 확장에 비금가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있는 공헌은 지난 700여년 동안 학문의 傳承과 엘리트 양성이라는 특징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온 대학교육의 場

에 「機會均等」이라는 새로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대학교육 이념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이룩한 점이다.

12세기 중반으로 그 기원을 推定하는 영국의 대학교육은 19세기초에 이르도록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의 두 학교만을 유니버시티의 原型(prototype)으로 삼고서 발전되어 왔다. 이 두 학교는 학문의 自由와 대학의 自律性(autonomy)이라는 원칙 아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나 타기관의 關與를 排除한 채, 「유니버시티」라는 독립된 自治의 조직체에 의해서만 교육 재정을 조달·관장하고 교육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해 왔다. 또한 古典教育을 중심한 교과과정을 「튜토리얼」(tutorial)이라는 教授法에 의해 가르쳤으며, 엄격한 기숙사 제도의 실시로 교수—학생간의 人格的, 人間的 만남의 관계를 특히 강조해 왔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두 대학은 그 구성원을 包含에 있어, 장래에 종교,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면에서 指導的 位置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되는 소수의 부유층 자녀들로 주류를 삼아 왔기에 사회 계층의 분포의 閉鎖性을 보여 왔다.

대학교육에 관한 영국 정부의 최초의 關與는 교육행정의 측면에 있어서 1852년 Royal Committee에 의해 위 두 대학의 운영 및 교육 수준을 알아보는 일이었고,<sup>1)</sup> 교육재정의 측면에 있어서는 19세기 후반 3~4개의 市民大學校(civic university)가 설립되자 1889년 이후부터 小額의 政府補助金を 지급한 것에서 비롯되었다.<sup>2)</sup> 20세기에 들어서는 1차대전 이후(1918년) 당시의 文教責任者였던 H.A.L. Fisher에 의해 최초의 정부장학금제도가 마련되어 매년 200명의 대학생을 그 受惠者로 삼았으며,<sup>3)</sup> 다음해인 1919년에는 대학보조위원회(University Grants Committee: U.G.C.)가 설립되어 공식적인 學費補助의 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U.G.C.는 단지 학비 보조의 기능만을 지닌 기구였기에 대학교육의 내용, 수준, 행정의 면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고,<sup>4)</sup> 대학의 自律性을 절대적으로 존중해 온 정부의 태도는 자연히 대학교육의 발전 내지는 개혁에 관해 소극적이었으며, 이러한 입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194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유니버시티라는 自治組織에 의해서만 그 이념과 특징을 형성해 온 영국 대학은 19세기 중반 런던대학교를 위시하여 Durham, Manchester 등에서 소위 市民大學校(혹은 그 건축 형태에 의해 Redbrick University)라 불리우는 종합대학교들이 설립되게 되자 옥스브리지의 典型的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곧 國敎인 聖公會(Church of England)의 信奉을 반대하는 Nonconformists의 자녀들과, 빅토리아 시대의 산업발전에 힘입어 새롭게 형성된 신흥 중산층 자녀들을 위한 대학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당시 독일의 高等教育 形態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튜토리얼 교수법 이외에도 「Professorial」 제도를 통한 teaching과 research의 並行的 發展을 강조하기 시작했다.<sup>5)</sup> 그러나 시민대학교들도 처음부터 교수 대 학생의 비율(staff/student ratio)을 낮게 유지하면서 튜토리얼제도를 통한 古典敎育 中心의 교과과정을 지속시켰으며, 성격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만을 嚴選하여 기능적 전

문가라기보다는 장래 지도계급의 교양을 갖춘 자로서의 적절한 교육을 강조했기에, 소수의 엘리트층을 위한 大學敎育이라는 전통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예컨대 시민대학교의 발전은 1900년 전체 인구의 0.8% (약 2만명)를 차지했던 大學生數를 1938년 1.7% (약 5만명) 정도로만 증가시켰을 뿐이었다.<sup>6)</sup>

이러한 持續(continuity)의 현상은 1950년대에 이르러 변화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같은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그 중 하나는 2차대전 이후 출생율의 증가로 인해 대학진학 희망자의 수가 자연 증가한 점이다. 둘째는 公敎育體制의 변화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Butler 法案이라 불리우는 1944년 교육법에 의해 중등교육이 無償의 의무교육으로 제정되어 1947년부터 모든 아동이 만 15세까지 학교에 머물도록 의무화되자 大入中心의 「grammar school」의 학생수 및 대학진학 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 가운데 전통적인—소수의 폐쇄적인—대학의 특징이 挑戰을 받은 점이다. 세번째의 영향은 새롭게 각광받는 心理學의 이론에 근거하여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는 각 연령층 중 극히 소수에 제한되어 있다”는 소위 「Pool of Ability」의 이론적 근거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대학교육을 포함한 高等教育의 擴充을 위한 정부의 투자는 국가 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는 敎育經濟學的 期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7)</sup>

예컨대 1961년 Washington D.C.에서 열린 經濟開發協力機構(OECD)의 회의에서 영국을 위시한 歐美 23개 敎育先進國 代表들은 고등교육의 확대를 위한 투자는 기회균등 이념의 구체화와 社會正義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曄목할 만한 受益(return)을 가져다 줄 것을 예상했던 것이다.<sup>8)</sup>

이러한 기대 속에 1961년 Macmillan 수상에 의해 구성된 12명의 로빈슨 위원회는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20년간의 綜合計劃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他報告書들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곧 영국과 함께 1960년대 초반 고등교육의 확대를 추진했던 프랑스나 소련 등에서는 高等教育 人口의 바람직한 증가

을 계획함에 있어 국가 경제적 要求에 의해 (이른다면 10년 후 요구되는 의사나 전기공학 전문가의 수) 산출하는 「manpower approach」와 교육투자의 收益率(return rate)을 엄격히 계산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대학생수의 증가를 계획하는 「human capital approach」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빈스 위원회가 사용한 방법은 「social demand approach」—그 의미에 있어서는 “private demand approach”—로서 지난 10여년간의 大學 進學希望者의 증가 추세를 기준으로 삼고 향후의 바람직한 대학생수의 증가를 예상, 계획한 방법이었다.<sup>9)</sup>

이러한 social demand approach를 대학교육 개혁의 기본적 방법으로 채택한 점은 전통적인 大學構成員의 분포에 현저한 변화를 前提로 함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영국 대학의 이념과 특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한 로빈스 보고서는 고등교육의 理念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첫째 경쟁산업시대에 副應할 수 있는 技術의 획득, 둘째 기능인이나 전문인 양성이 아닌 성숙한 文化市民을 만들기 위한 理性的 統制力 발전, 셋째 진리의 탐구와 학습의 전진, 넷째 건전한 사회가 의존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관습을 모든 시민이 접하도록 하는 공통 문화의 傳承이었다.<sup>10)</sup> 특히 넷번째 목적을 서술함에 있어 로빈스 위원회가 機會均等の 原則을 적용하면서, 이를 독특하게 해석했음은 주목할 일인데, 기회균등이란 교육에의 接近(access)을 중심한 공식적(de jure) 의미의 기회균등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不平等이 곧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대체되어지는 惡循環을 막기 위해 실질적 의미의 기회균등을 실현시키며, 이에 더 나아가 가정 환경의 不平等을 보상하게 하는 효과적인 의미의 기회균등—후일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로 표현된 기회균등—까지를 고등교육의 領域에 적용시켰던 것이다.<sup>11)</sup>

로빈스 보고서의 계획에 따라 수평적 확장과 수직적 확장을 본 영국의 대학 교육은 1970년 유니버시티 내의 大學生數가 국민전체의 7.0% (1980년에는 8.0%)에 이르게 되었으며, 국가 公教育費가 GNP의 5.0% (1960년에는 3.4%)

를 차지하게 되었다.<sup>12)</sup> 그러나 1960년대말부터 오일쇼크가 동반한 국제적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국가재정 축소의 현상은 막대한 공교육비의 效率性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이와 때를 같이한 많은 수의 사회과학 研究結果는 고등교육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기대했던 經濟發展이나 사회적 平等을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밝히게 되었다.<sup>13)</sup>

이와 같이 위촉된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어 온 70년대의 대학교육은 현재에 이르도록 60년대의 活氣를 되찾지 못한 채, 교육개혁에 微溫的 立場을 취해 온 보수당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그 수적 확장에는 懷疑的인 位置에서 있는 것이다.

## II

로빈스 보고서가 제출된 지 20년이 된 오늘, 영국은 教育政策樹立에 있어 대학교육의 이념과 형태를 再考해야 할 당면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테면 1980년대 이후의 대학교육은 과연 어떠한 基準에 의해 계획되어야 하는가? 로빈스 보고서의 경우처럼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는 한 social demand approach에 의해 그 수적 증가를 계획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그 收益價値가 적은 것으로 밝혀진 대학교육의 확장을 단지 개인의 自我實現을 위한 것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또한 평등주의적(egalitarian) 社會哲學이 강하게 주장되는 오늘,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해 온 대학교육에 적용될 기회균등의 命題는 과연 어떠한 형태를 지녀야 하는가? 그리고 영국 대학의 이념적, 기구적 特徵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사회경제적 技能間의 緊張關係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당면과제의 背景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 歷史의 흐름 중 변치 않고 지속되는 영국 대학의 특징과 최근에 이르러 변화의 추세를 보이며 改革論爭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는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持續의 特徵<sup>14)</sup>

첫째, 영국 대학은 入學査定에 있어 엄격한 選

別性(selectivity)을 특징으로 한다. 앞서 말한 pool of ability의 이론적 근거를 전제로 學士學位의 기준을 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은 모든 대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존중하는 전통으로, 소수를 위한 대학교육을 정당화시키는 準據이기도 하다. 이 선별성의 전통은 학위취득의 과정에 이르도록 강조되고 있는데, 곧 part-time 學業制度에 비판적임은 물론 졸업논문 심사에 있어 他大學 教授가 심사위원 중의 하나로 구성되도록 하는 「External Examiner」 제도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영국 대학이 미국이나 유럽의 어느 나라에 비하더라도 가장 낮은 學業中斷率을 지니고 있음도 이같은 입학심사의 선별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의 특징은 훈련보다는 敎育 자체를 강조하는 교과내용의 지속이다. 20세기 중반 심화되어 온 국제적 경쟁은 technology, 工學, 經營學 등 응용과학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 대학은 아직도 인문과학, 사회과학 및 순수 자연과학의 분야만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기능인 양성을 위한 職業敎育이 유니버시티 밖에서 실시되어 왔고, 실용성보다는 純粹學問의 추구가 대학의 본질이라는 전통적 사고가 대학 진학자나 교수에 있어 지속적으로 우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말부터 교과과정의 강조 및 학생들의 嗜好가 인문과학에서 사회과학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응용과학에 관한 상대적 輕視 現象은 아직도 뚜렷하다.

세번째의 특징은 家庭的 雰圍氣(domesticity)에서 실시되는 敎育의 형태이다. 학문의 전승과 인격 형성이라는 敎育理念을 강조해 온 영국 대학은 교수와 학생간의 밀접한 학문적 교류를 위해서는 튜토리얼 제도를, 그리고 친밀한 개인적 교류를 위해서는 기숙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해 왔다. 이러한 전통 위에 교수 대 학생의 比率를 1:9라는 놀랄 만한 수준으로 유지해 온 영국 대학은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확장에 도 불구하고 그 비율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敎育의 수적 증가보다는 질적 향상을 중시하는 傳統을 例證함은 물론, 大學의 가정적 분위기를 강조하는 특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기회균등의 원칙과 대학의 확충을 역설했던 로빈스 위원

회 역시 대학생 중 적어도 2/3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제안했음은 친밀한 분위기에서 접하게 되는 共同體 意識의 형성이 대학교육의 한 본질적 요소로 계속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예시한 것이었다.

## 2. 變化의 樣相

영국 대학은 위에 열거한 특징들을 지속시키고 있는 반면, 다음의 몇 가지 이슈에 있어서는 수정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첫째는 행정과 재정관리를 중심한 대학의 自律性 問題이다. U.G.C.를 통한 정부의 학비보조가 전체 대학교육 경비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현재에 이르도록, 敎授를 중심한 유니버시티 조직체에 의한 경비의 사용 및 效率性이 관리되고 있는 점은 비판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전통적 자유주의와 개혁주의자의 주장이 양립되어 있다.<sup>15)</sup> 傳統的 立場은 대학의 자율성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敎育의 내용, 방법 및 재정관리가 이루어져야만 문화유산의 전승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를 내세우면서, 현재처럼 정부의 보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 管理 運營權은 대학 자체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몇몇의 전통주의자들은 정부의 補助 比率가 높아질수록 관여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가급적 정부의 보조를 止揚하고 미션 학비나 대학 자체의 기금을 통해 대학교육이 실시되기를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改革主義者들은 공공교육비의 집행에 관한 공적 책임(public accountability)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학 자체의 행정은 이제 그 限界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날로 그 수가 증가되며 다원화되어 가는 대학의 행정과 재정관리를 그 전문가가 아닌 교수들에게 위임한다는 사실은 效率性의 문제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문의 자유를 강조하는 전통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박하기를 독일의 대학은 정부의 監査에 순응하며 독일의 대학교수는 실제에 있어 공무원의 신분과 유사하지만 독일 대학은 영국 대학 이상으로 學問的 自由가 보장되는 점을 예증하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하여 國家的 次元의 改革을 역설하고 있다. 옥스브리지와 칼리지의 연합체

로서 다원적 행정체제를 지니고 있음에 반해 많은 수의 레드브릭 대학은 一元的 體制를 지니고 있기에 언뜻 보기에는 개혁주의자들의 주장이 쉽게 현실화될 것처럼 보이나 레드브릭 대학 역시 유니버시티라는 독립 조직체의 特性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실용성 추구하고 행정적 효율성보다는 자유라는 평등을 우선적으로 존중해 온 영국의 전통은 위의 두 입장을 아직 팽팽한 긴장관계로 남겨 두고 있는 것이다.<sup>16)</sup>

다른 하나의 논쟁의 이슈는 대학생 선발을 중심한 社會階層의 分布에 관한 것이다. Ralph H. Turner 가 지적한 것처럼 영국의 敎育制度는 아직도 contest mobility 보다는 sponsorship mobility 를 특징으로 지닌다.<sup>17)</sup> Butler 敎育法 制定 이후 대다수의 학생들은 만 16 세에 이르도록 무상으로 실시하는 公立學校에서 敎育을 받고 있다. 대학진학 희망자들은 그 후 2년간 (16~18 세)을 Sixth-Form 이라 불리는 大入準備過程을 거쳐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반면 아직도 10% 정도의 上流層은 비싼 수업료로 운영되는 사립 유치원(4~6 세), 사립 국민학교(7~12 세), Public School 을 위시한 사립 중등학교(13~18 세)의 과정을 거쳐 대학에 이른다. 이와 같이 공사립간의 현저한 차이를 지닌 敎育의 二重構造(double-track) 속에서 사립학교는 우수한 교사진과 시설 및 낮은 교사/학생 비율(예컨대 공립의 경우 1 : 25 인데 비해 Public School 은 1 : 10 정도이다)을 통해 대입준비에 월등한 利點을 지닌다. 1980년 현재 전체 학생수의 5% 정도를 차지하는 사립중등학교의 출신이 전체 대학생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은 이를 잘 에증한다.<sup>18)</sup>

이러한 이중적 敎育구조하에서는 능력과 노력의 의지를 지닌 우수한 학생만이 대학敎育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meritocracy 원칙의 固守는 결국 학생선발에 있어 부유층 자녀의 환경적 利點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입 선발자체의 수정만으로는 대학생의 社會계층적 분포에의 變化는 가능하지 않으리란 것을 아는 개혁주의자들은 Public School 을 위시한 사립 중등학교의 廢止를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사립 중등학교는 공립학교처럼 상당액의 國家補助를

받고 있기에 이같은 국가보조는 社會 정의의 실현보다는 현 社會構造의 지속을 더욱 두둔하는 셈이 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사립학교 출신이 차지하는 대학생수의 構成比率는 점차 퇴보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sup>19)</sup> 개인의 自由權을 절대 존중해 온 영국은 여유 있는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좋은 敎育을 받게 하는 自由 또한 제한할 수 없다는 論理 위에서 敎育의 이중구조를 지속시키고 있기에, 위에 말한 퇴보의 곡선은 완만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끝으로 변화의 논쟁이 되는 이슈는 國家經濟에 직접 관계되는 응용과학, 경영학 및 technology 의 발전에 관한 것이다. 응용과학 분야의 발전 필요성은 앞서 서술했거니와, 他國家에서는 經濟學의 인기가 대단하여 치열한 입학경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직 대부분의 영국대학은 學科마저 설치하지 않고 있음은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大學의 社會경제적 기능과 보수적인 대학의 組織간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 technology 와 응용과학을 대학 敎과 과정에서 강조하는 일은 전통적 敎育목적의 變化를 의미함은 물론 막대한 경비의 증가 및 配定을 전제로 한다. 그러기에 비록 이론상 應用科學의 시급한 발달 필요성에는 동조하면서도, 실제에 있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대학敎育의 傳統的 長點(例 : 교수 대 학생의 낮은 비율)을 희생시킬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 III

앞에서 영국 대학의 특징과 그 변화 형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1) 대학 내의 학문적, 기구적 변화, (2) 대학생 수의 변화에 영향을 준 社會의 변화, (3) 대학이라는 idea 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社會的 변화, 그리고 (4) 대학에 가해진 재정적, 행정적 형태의 변화에 관해 간략히 알아 보았다.<sup>20)</sup> 이러한 네 가지 맥락에서 볼 때 긴 歷史를 지닌 영국 대학은 變化 보다는 傳統的 持續을 그 특징으로 삼고서 20세기 중반에까지 이르렀다. 그 후 나타난 변화의 樣相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좁은 幅의 것이었고, 대학 敎育과 社會의 요구를 가장 가깝게 연결시켰던

것은 經濟와의 관련성 때문이었다. 최근에 이르러 사회구조의 변형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의 대학교육의 社會的 機能이 강조되자 전통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 사이에는 날카로운 대립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전통의 持續과 變化라는 否定的 關係 위의 줄다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改革主義者들이 부르짖는 기회균등 이념에 근거한 폭 넓은 대학교육과 傳統主義者들이 외치는 수준 높은 대학교육이라는 두 명제가 모순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갈등의 관계이기에 생겨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緊張關係를 더욱 예민하게 만드는 것은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科學化, 産業化의 추세이다. 경제발전이 직결되어 있는 응용과학의 강조와, Max Weber가 지적한 합리적 機能 組織에 근거한 公教育의 관리, 그리고 교육을 통한 社會正義의 실현은 현재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특징이며 동시에 당면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일단 組織體로서 굳어져 있는 유니버시티는 그 생리에 의해 조직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1960년대 이후 거세게 부는 대학의 확장파와 개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選別된 소수 중심의 교육형태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교육이념의 설정에 있어 meritocracy 대 평등주의적 大學教育이라는 이론적 갈등을 表出시키는 實例인 것이다.\*

<註>

- 1) J. Stuart Maclure, Educational Documents—England and Wales 1816—1963 (London: Chapman & Hall, 1965), pp. 63—69. 본 글에서의 영국은 Scotland를 포함하지 않는 England만을 지칭한다.
- 2) Asa Briggs,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Kingdom" in W.R. Niblett(ed.) Higher Education—Demand and Response (London: Tavistock, 1969), pp. 97—98.
- 3) 1931년부터는 300명씩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Brian Simon, The Politics of Educational Reform, 1920—1940 (London: Lawrence & Wishart, 1974), pp. 157—9 & 218 참조.
- 4) U.G.C.의 발전에 관해서는 Asa Briggs, op. cit., pp. 98—107 참조.
- 5) John Vaisey, Education in the Modern World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67), pp. 161—163.

- 6) A.H. Halsey (ed.), Trends in British Society since 1900 (London: Macmillan, 1972), p. 206ff.
- 7) 이러한 영향에 관해서는 르빈스 보고서와 같은 해 출간된 HMSO, Half Our Future—A Report of the CAC (1963) Chapter 1 & 2를 참조.
- 8) OECD, Policy Conference on Economic Growth and Investment in Education (Paris: OECD, 1962)
- 9) 구체적 설명을 위해서는 HMSO (DES), Educational Planning Paper No. 2: Student Numbers in Higher Education in England and Wales, pp. 2—6. G. Fowler, V. Morris and J. Ozga, Decision Making in British Education (London: Heineman 1973), pp. 227—251.
- 10) HMSO, Higher Education (Robbins Report), 1963, pp. 6—7.
- 11) Ibid., p. 7 (No. 28). 효과적 기회균등의 강조는 Plowden Report (Children and Their Primary School, 1967)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 12) HMSO, National Income and Expenditure, 1965—75, pp. 2—3.
- 13) 그 대표적 연구로는 경제발전과 관한 OECD, Educational Policies for the 1970s (Paris: OECD, 1971). 사회구조의 변동에 대한 A.H. Halsey, A.F. Heath & J.M. Ridge (ed.), Origins and Destininations: family, class and education in modern Britain, (Oxford: Clarendon, 1980)을 참조할 것
- 14) 영국 대학의 특징에 관해 A.H. Halsey & M.A. Trow, The British Academ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p. 76—83 참조 할 것.
- 15) Ibid., pp. 89—99.
- 16) Sydney Caine, British Universities—Purpose and Prospects (London: Bodley Head, 1969), pp. 182 ff. Roy Butle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Higher Education in Great Britain," in Oxford Review of Education, Vol. 8, No. 3, 1982, pp. 265—278.
- 17) R.H. Turner, "Modes of Social Ascent through Education: Sponsored and Contest Mobility", in A.H. Halsey et al. (ed.), Education, Economy and Society.
- 18) HMSO, Report on Independent Day Schools and Direct Grant Grammar Schools (1970), p. 88.
- 19) Ibid., Table 87 and 88.
- 20) 이는 영국의 史學者 Asa Briggs의 접근방법이다. op. cit., (1969), pp. 95—96.